

전북지역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 분석연구

A Study on the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of Public Libraries in Jeonbuk Provincial Area

최 흥 식(Hung-Sik Choi)*

서 진 순(Jin-Soon Suh)**

〈 목 차 〉

I. 서론	III. 조사분석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분석의 구분체계
2. 연구방법	2. 시별 종합분석
II.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	IV. 분석결과
1. 용어의 개관	1. 외형적 분석결과
2. 실시배경 및 발전	2. 내용적 분석결과
	V. 결 론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고유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모색해 보자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고, 전라북도 지자체하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운영기관의 교육문화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여 공공도서관 본래의 특성을 살린 교육문화프로그램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주시립도서관산하의 5개관을 비롯한 각 시단위의 공공도서관 10개관과 각 시의 지자체 직영의 평생학습센터, 문화의집,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여성문화센터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조사, 분석하였다.

키워드: 교육문화프로그램,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work out a data-based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 that can best identify the original role of library in a measure to activate it. To achieve this goal and introduce an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 that would faithfully meet the desired characters of library, a research was made to examine the theoretical aspects of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offered by public libraries, compare and analyze those conducted at the public libraries and life-long educational centers of the local autonomous bodies in Jeonbuk Province. Included in the research as subjects were 10 public libraries in the cities of the province including 5 branches of JeonJu Municipal Library and various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operated directly by each municipal self-governing body under such title names as life-long educational centers, cultural houses, residential autonomy centers, women's halls, women's culture halls and women culture centers.

Keywords: Educational & Cultural Program, Public Library, Cultural Program,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 of Public Library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부교수(choi6367@hanmail.net)(제1저자)

** 전북 완주군 도서관 사서(chiri313@hanmail.net)(공동저자)

• 접수일: 2009년 12월 1일 • 최초심사일: 2009년 12월 5일 • 최종심사일: 2009년 12월 26일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적극적인 도서관 자료 활용에 있다. 이의 법적근거는 도서관법 제4장 28조(2006년10월4일 개정)에 명시된 공공도서관 업무에 정보 및 교육, 문화센터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제28조 4항에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라는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목적과 법적근거를 기저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들은 도서관 전반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보자료활용의 극대화를 꾀하는 차원에서 수많은 교육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은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는 상당한 전문 인력과 시간, 노력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기존 인력이나 소수의 보조 인력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도서관 자료와 친밀한 사서에게 생소한 일일 것이며, 새로운 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서 고유의 업무수행에 적지 않은 장애를 가져올 여지가 충분하다.

한편,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2000년 3월 1일부터 평생교육법 시행으로 설립된 평생학습기관이 있다. 그리고 각 지자체의 공공기관과 주민자치센터 등이 있고, 백화점이나 사설기관 등에서도 이루어진다. 문제는 동일한 지자체하에서도 이들이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중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동일예산과 인력, 시간, 노력 등의 중복투자가 되어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각 기관의 정체성이 충분히 반영된 프로그램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 기관의 강점과 특색이 어우러진 교육문화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즉, 공공도서관은 자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고, 기타 각 기관도 설립취지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용자에게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서비스할 것이다. 그렇다고 나머지부분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보다 집중하여 각 기관의 정체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이점에 착안하여 도서관을 비롯한 각 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전북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 문화프로그램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동일한 지자체하에 속해 있는 공공기관의 프로그램 유형과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각 기관의 정체성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로 인한 이용자의 심도있는 교육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 이를 준비하는 관련자들에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수행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을 조사하여 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과 평생교육기관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전북지역 지자체하에서 동일예산으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과 평생학습기관, 문화의 집 등 관련기관의 문화프로그램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조사된 내용을 기관과 내용별로 구분하여 각 기관의 표면적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내용을 7개 영역화하여 각 기관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내용별 분석은 도서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북지역의 시단위 지자체인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로 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적 대표성과 교육문화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고려하였고, 이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유사성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은 전주시립도서관을 비롯한 각 시단위의 공공도서관 10개관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 시의 지자체 직영의 평생학습센터, 문화의집,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여성문화센터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조사, 분석하였다. 단, 조사대상의 모든 지자체에서 각 기관들을 모두 운영하는 것은 아니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만 조사하였고, 주민자치센터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시별 고유의 특성을 찾을 수 없어 전주시를 대표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문화프로그램은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 현실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II.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

1. 용어의 개관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은 도서관의 “자료중심 봉사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비도서 활동’으로 지칭¹⁾되기도 하고, 문화적 기능이 강한 활동이란 의미로 ‘문화활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용자를 참여시키는 모임 중심의 활동이란 의미에서 ‘집회 행사활동’ 등으로 지칭²⁾되기도 한다. 그

1) 문화부,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문화부, 1990), p.34.

2) 이용남, 문화매체로서의 공공도서관(문화예술, 1990), 128, p.5.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4호)

리고 공공도서관에서 각급 연령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회교육 프로그램, 문화행사 프로그램 등을 총괄하는 의미를 뜻³⁾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육문화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이용자들을 위한 어학 및 문화예술 강좌, 취미오락 강좌, 독서회, 어린이를 위한 독서교실, 동화구연, 청소년을 위한 교양강좌, 노인들을 위한 노인교실, 주부를 위한 각종 강습회, 모든 이용자를 위한 강연회, 전람회, 감상회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이 직접 공공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전문사서의 지문과 도움을 받아 예술을 감상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획득, 여가 선용을 위해 행하는 다양한 문화 예술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⁴⁾

이와 같이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목적을 대변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즉 자료와 밀접한 교육, 독서와 관련된 용어, 문화 등과 관련된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은 도서관 시설과 전문사서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유형으로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용어와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공공도서관이 추구하는 교육과 문화적 기능을 달성하려는 방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사한 모든 용어를 대표할 수 있고 도서관법과 한국도서관 기준에서 표기된 '교육문화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실시배경 및 발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공공도서관 목적을 설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국 도서관협회(ALA, 1943년)의 '전후 공공도서관 기준'이다. 이 기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교육, 정보, 예술감상, 조사연구, 레크레이션 등으로 제기하고 있다.⁵⁾ 또한, UNESCO는 1972년 개정된 UNESCO 공공도서관선언서(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에서 공공도서관은 교육, 문화, 정보라는 세 가지 목적을 위한 민주적 기관으로서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⁶⁾하고 있어 공공도서관의 교육과 문화적 기능을 표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제정, 공포된 도서관법 제15조 2항에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기타 행사를 주최하거나 장려하는 일"을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의 하나로 명문화하였다. 1994년 개정, 공포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0조에는 공공도서관의 교육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제시하면서 각종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차원의 활동을 권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2006년

3) 권남익, 공공도서관의 문화행사 실태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 광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 p.5.

4) 상계서, p.9.

5) 박경미,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 고찰(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pp.19-20.

6) 상계서, p.19.

10월 4일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 제28조에서도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정보, 문화, 교육센터'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라고 제시하고 있어 공공도서관의 교육과 문화적 역할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각 국가마다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의 교육적,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Monroe⁷⁾는 여러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조사하여 공공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을 분석, 역할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고, Robotham과 LaFleur⁸⁾는 공공도서관의 주요 업무기능인 정보제공과 더불어 문화프로그램이 도서관 홍보수단, 장서의 확장기능, 지역주민에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제공 등 문화프로그램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민자를 위한 민족과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다문화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있으며, 시빅센터 도서관(스코츠델)은 '도서관에서 버라이어티쇼를 하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직접 촌극, 코미디, 뮤지컬 공연 등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어린이 책 축제'를 진행하였고, 미국 동북부의 Maine주에서는 '소란스럽게 책읽기(Reading Rumpus)', 강연회, 음악회, 페이스페인팅, 다운타운에서 책 찾기 등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똑똑해지는 도서관 카드 만드는 날, 2007 책축제, 텍사스 책축제 등을 실시하고 있었고 팍 메모리얼 도서관은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블랙 마운틴 도서관은 다양한 계층의 '북그룹'이 자생, 활동하고 있다.⁹⁾

국내의 경우,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실현배경은 196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과학기술의 발달과 고도 산업사회로의 변화로 자기교육,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고조되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 봉사구조의 체제화 정비를 통해 사회교육, 문화활동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라는 중대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으며,¹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와 더불어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는 중요한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¹¹⁾는 측면도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실행 배경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같이 국내외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실시배경 및 사례를 보면, 앞으로 교육문화프로그램은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의 긴밀한 협조,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활용공간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또한 전 국민의 지식정보 활용능력을 한 차원 높이고 균등한 정보접근의 기회제공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문화 복지 평생

7) Margaret E. Monroe, "The Cultural Role of the Public Library," *Advances in Librarianship*, 11(1988), pp.11-17.

8) J. Robotham, L. LaFleur, *Library Program*, 2nd ed.(New York : Knowledge Industry, 1981).

9) 3M Library News(2007).

10) 김도연,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적 기능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고찰-아동 및 청소년의 문화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도서관교육 전공, 1998), pp.8-9.

11) 문화관광부, 문화정책백서(서울 : 문화부, 2003), p.5.

교육시대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교육문화체험 학습공간으로서 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해 가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공도서관은 교육문화프로그램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자료이용을 증가시키고, 직·간접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화를 제공해 줌으로써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다¹²⁾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

한편, 2000년 3월 1일부터 평생교육법이 시행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평생토록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고,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국민의 요구가 늘어남으로써 지자체 산하의 평생교육 기관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여가생활을 즐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많아지고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기회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학습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공공기관 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 및 기관, 기업체에 서도 다양한 목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¹³⁾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은 도서관의 활성화와 다양한 문화체험을 기반으로 탄생된 반면에 지자체 산하의 평생교육은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평생 교육적 측면이 부각된 프로그램이다. 결국 지자체 산하의 평생교육은 지식사회로의 변환으로 지식이라는 핵심요소가 자원으로 부각되면서 나타난 프로그램인 것이다. 이러한 목적과 내용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문화프로그램과 중복됨이 적지 않다. 이는 예산과 인력, 시간, 노력 등의 낭비는 물론,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각각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각 기관의 특색과 정체성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심도 있는 교육과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Ⅲ. 조사분석

1. 분석의 구분체계

공공도서관의 교육문화프로그램과 평생학습센터들의 문화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구분체계가 필요하다. 한국도서관협회는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유형¹⁴⁾을 주제별, 봉사대상별, 미디어 형태별, 도서관지원방법별로 체계화하고 있어서 정형

12) 조찬식, 노승희,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지역간 균형 발전에 관한 연구," 도서관, No.356(2000), p.42.

13) 이정숙, 평생교육법 시행 후 충남지역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2005), p.2.

14) 한국도서관협회,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 문화부, 1990), p.34.

화된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의 문화프로그램은 정형화된 구분 체계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유형과 세부항목이 다양하여 정형화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교육문화프로그램과 지자체 운영 평생학습센터들의 문화프로그램을 통합한 구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들의 프로그램 유형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지만, 이들의 설립목적과 프로그램 수행의 차이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통합된 구분체계를 마련할 수는 없었다. 다만, 이들이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종합한 결과, 자료중심프로그램·어학관련프로그램·정보화관련프로그램·가족생활관련프로그램·예술관련프로그램·전통문화관련프로그램·기타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를 간략하게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분석의 구분체계

구 분	내 용
자료중심프로그램	독서와 논술, 시나 소설 등과 같이 많은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문학과 관련된 내용
어학관련프로그램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한문과 한자, 한글, 기타 외국어 등과 같이 어학과 관련된 내용
정보화관련프로그램	컴퓨터와 인터넷, 문서작성 워드프로세서를 포함한 내용
가족생활관련프로그램	가족 구성인의 역할과 자세, 자녀교육, 가족놀이, 건강, 예절 등을 포함한 내용
예술관련프로그램	음악, 미술, 체육 등을 포함한 내용
전통문화관련프로그램	전통놀이, 전통음식, 풍습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내용
기타프로그램	상기 이외의 기타영역

본 연구는 이상의 7개 영역 가운데 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성격상 자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자료중심, 어학, 정보화관련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었고 이를 ‘자료관련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자 한다. 이것은 논술과 독서, 외국어, 컴퓨터, 인터넷 등과 같은 내용이 음악, 미술, 체육, 건강, 가족, 음식 등과 같은 내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료와 밀접한 관련성이 많고, 상호작용으로 프로그램의 질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 시별 종합분석

가. 전주시

전주시가 운영하는 교육문화프로그램 기관은 공공도서관 5개, 평생학습센터 1개, 문화의집 5개, 주민자치센터 33개로 총 39개 기관이다.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전주시 교육문화프로그램 전체 현황

구분	자료중심 (%)	어학 (%)	정보화 (%)	가족생활 (%)	예술 (%)	전통문화 (%)	기타 (%)	합계 (%)
공공도서관 (5관)	6개 (19.4)	9개 (29.0)	3개 (9.7)	2개 (6.5)	9개 (29.0)	2개 (6.5)	· 0	31개 (100)
1관당	1.2개	1.8개	0.6개	0.4개	1.8개	0.4개	·	6.2개
평생학습센터 (1관)	6개 (6.6)	3개 (3.3)	16개 (17.6)	9개 (9.9)	50개 (54.9)	· 0	7개 (7.7)	91개 (100)
1관당	6개	3개	16개	9개	50개	·	7개	91개
문화의 집 (5관)	20개 (10.5)	12개 (6.3)	5개 (2.6)	3개 (1.6)	137개 (72.1)	· 0	13개 (6.9)	190개 (100)
1관당	4개	2.4개	1개	0.6개	27.4개	·	2.6개	38개
주민자치센터 (33관)	7개 (3.2)	12개 (5.5)	5개 (2.3)	2개 (0.9)	188개 (86.6)	1개 (0.4)	2개 (0.9)	217개 (100)
1관당	0.21개	0.36개	0.15개	0.06개	5.7개	0.03개	0.06개	6.57개
기관당계	39개	36개	29개	16개	384개	3개	22개	529개 (100)

전주시 교육문화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가 217개로 가장 많고, 문화의집 190개, 평생학습센터 91개, 전주시립의 공공도서관 31개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프로그램 평균 개설 수는 평생학습센터가 91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문화의집 38개, 주민자치센터 6.6개, 전주시립의 공공도서관 6.2개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주시립의 공공도서관은 전체적으로나 평균적으로 가장 적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새로운 교육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기관별 분석

공공도서관은 어학과 예술이 각각 9개(29.0%)로 가장 많았고, 자료중심 6개(19.3%), 정보화 3개(9.7%), 가족생활과 전통문화 각 2개(6.5%) 순이었다. 이것은 도서관 고유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교육문화프로그램에 비교적 부합한 내용이다. 그러나 예술이 자료중심보다 상위에 나타났고,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도 상대적으로 적게 운영되고 있어 도서관 고유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센터¹⁵⁾는 예술이 50개(54.9%)로 가장 많았고, 정보화 16개(17.6%), 가족생활 9개(9.9%), 기타 과학기술과 수학 7개(7.7%), 자료중심 6개(6.6%), 어학 3개(3.3%)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과 가족생활이 64.8%를 보여 전반적으로 주민의 문화생활 및 가족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종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료중심과 어학, 정보화프로그램이 27.5%로 나타났다. 이것은 동일한 지자체하에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과 중복된 투자로 예산낭비와 인력, 시간, 노력의 손실을

15) 전주시평생학습센터, 〈<http://jjedu.or.kr>〉 [인용 2009. 7. 20].

가져올 수 있다. 평생교육학습센터는 자료관련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적은 기관임을 감안하면 심도있는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의 정체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문화의 집¹⁶⁾은 예술이 137개(72.1%)로 가장 많았고 자료중심 20개(10.5%), 과학기술과 수학 13개(6.9%), 어학 12개(6.3%), 정보화 5개(2.6%), 가족생활 3개(1.6%) 순이었다. 예술과 가족생활관련프로그램이 73.7%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주민의 예술문화생활과 가족건강 관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평생학습센터에 비해 비교적 기관의 정체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료와 어학, 정보화관련프로그램이 19.4%로 나타나 동일한 지자체하에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과 중복된 투자로 예산낭비는 물론, 선택과 집중에 부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과 문화의 질적 측면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 기관 고유의 강점과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과거 읍, 면, 동의 개념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밀착하여 긴밀한 서비스를 실행하는 기관이다. 지리적으로 주민과 가장 근접한 기관이어서 주민복지를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미술, 음악, 건강 등과 관련된 예술프로그램이 188개(86.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공공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문화의집 가운데 공간적으로 가장 주민과 근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술문화와 함께 요가, 스포츠댄스, 재즈댄스 등의 건강관련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지리적 특색을 반영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료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11.1%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도서관과 중복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었다.

(2) 내용별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7개 영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가운데 공공도서관이 지향할 자료중심 프로그램과 어학관련프로그램, 정보화관련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전주시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은 전체 52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예술 384개, 자료중심 39개, 어학 36개, 정보화 29개, 기타 22개, 가족생활 16개, 전통문화 3개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을 제외한 각 기관에서 도서관의 특성이 강한 자료중심과 어학, 정보화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중심프로그램은 총 39개로 문화의집 20개, 주민자치센터 7개,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센터가 6개의 순이고, 평균적으로는 평생학습센터 6개, 문화의 집 4개, 공공도서관이 1.2개, 주민자치센터가 0.21개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도가 높은 자료중심프로그램은 동화구연과 글쓰기, 독서와 논술,

16) 오충렬, 문화프로그램의 생성과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 이중문화의집을 중심으로(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p.4.

문예창작과 창의력 관련프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과 관련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모색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어학관련프로그램은 한문과 한자가 13개(36.1%)로 가장 많았고, 영어 10개(27.8%), 일어와 중국어 각각 5개(13.9%), 한글 3개(8.3%) 순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어학분야의 공통적 특성인 문법, 회화, 독해, 쓰기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난 한글관련 프로그램은 과거 교육을 받지 못한 어른들과 최근 급증한 다문화 가족의 정보격차 해소와 원만한 정착을 감안하면 많은 정책적 배려와 프로그램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 가운데 어학관련프로그램은 한글을 비롯한 한문과 한자, 영어, 일어, 중국어와 관련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모색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관련프로그램은 인터넷이 13개(44.8%)로 가장 많았고, 디카 프로그램 8개(27.6%), 컴퓨터 6개(20.7%), 엑셀과 파워포인트가 2개(6.9%) 순이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이해와 사용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디지털 카메라 과정은 사용방법과 함께 사진의 구도, 앨범작성 등을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워드와 관련된 내용은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 가운데 정보화관련프로그램은 컴퓨터와 디카와 같은 기기사용법과 인터넷과 워드프로세스의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교육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나. 군산시

군산시는 청소년회관 복합건물 안에 있는 도서관이 군산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평생학습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군산시가 직영하는 여성복지관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군산시 청소년회관의 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과 여성복지관의 문화프로그램을 종합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군산시 교육문화프로그램 종합분석

구분	자료중심 (%)	어학 (%)	정보화 (%)	가족생활 (%)	예술 (%)	전통문화 (%)	기타 (%)	합계 (백분율)
공공도서관	18 (13.7)	20 (15.3)	·	·	86 (65.7)	·	7 (5.3)	131 (100)
여성복지관	2 (3.7)	6 (11.1)	4 (7.4)	·	38 (70.4)	·	4 (7.4)	54 (100)
소계	20	26	4	·	124	·	11	185 (100)

군산시 청소년회관 도서관의 교육문화프로그램은 예술부문이 65.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자료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29.0%만을 운영하고 있어 도서관의 강점과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군산청소년회관이 수련관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건물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예술부문에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프로그램도 매우 적어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화관련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정보화사회로의 변화를 무색하게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복지관도 자료관련프로그램인 자료와 어학, 정보화관련프로그램도 22.2%로 나타나 동일한 지자체하에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과 중복된 투자로 나타났다.

다. 익산시

익산시는 영등도서관과 마동도서관의 2개 도서관과 문화의 집, 여성회관을 조사하였고, 이를 종합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익산시 교육문화프로그램 종합분석

구분	자료중심 (%)	어학 (%)	정보화 (%)	가족생활 (%)	예술 (%)	전통문화 (%)	기타 (%)	합계 (백분율)
공공도서관	8개 (38.2)	.	4개 (19.0)	4개 (19.0)	5개 (23.8)	.	.	21개 (100)
문화의집	4개 (23.5)	.	4개 (23.5)	1개 (5.9)	8개 (47.1)	.	.	17개 (100)
여성회관	.	6개 (8.6)	5개 (7.1)	.	57개 (81.4)	.	2개 (2.9)	70개 (100)
소계	12개	6개	13개	5개	70개	0개	2개	108개

익산시립도서관이 운영하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은 자료중심프로그램이 57.1%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도서관 특성을 살린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자료중심의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어 도서관 정체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었고, 각 프로그램의 비율을 안정적으로 배분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하는 노력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로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한 어학관련프로그램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이 단순하고 양적으로 매우 적어 어학관련프로그램의 개설과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의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익산시 문화의집 프로그램은 타시와 마찬가지로 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47.1%를 나타내고 있어 주민의 문화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정보자료지원으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자료와 어학, 정보화프로그램이 47%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익산시 문화의 집은 마동도서관과 인접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프로그램과 더욱 차별화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역에서 중복되고 있다. 이것은 동일한 지자체하에서 운영되는 측면을 고려하면 중복투자로 예산낭비와 인력, 시간, 노력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문화의집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상태라는 것을 고려하면 교육의 심도와 자료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 기관의 정체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익산시 여성회관 문화프로그램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이전에 살펴본 시와는 달리 독서와 논술, 구연동화 등과 관련된 자료중심프로그램은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자료관련프로그램을 15.7%를 운영하고 있어 중복투자를 해소하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질적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라. 정읍시

정읍시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과 여성문화회관의 문화프로그램을 종합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정읍시 교육문화프로그램 종합분석

구분	자료중심 (%)	어학 (%)	정보화 (%)	가족생활 (%)	예술 (%)	전통문화 (%)	기타 (%)	합계 (백분율)
공공도서관	5개 (100)	5개 (100)
여성문화회관	2개 (4)	5개 (10)	2개 (4)	3개 (6)	33개 (66)	.	5개 (10)	50개 (100)
소계	7개	5개	2개	3개	33개	0개	5개	55개

정읍시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고유의 자료중심프로그램만으로 구성되어 방향성은 좋으나 프로그램 운영수가 매우 적고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에 있어서 전면적인 정책수립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정읍시 지자체운영의 여성문화회관은 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66%를 나타내고 있어 비교적 주민의 예술문화 생활과 관련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료를 기반으로 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인 자료와 어학, 정보화프로그램이 24%로 나타나 동일한 지자체하에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과 중복된 투자로 예산낭비는 물론, 선택과 집중에 부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 문화의 질적 측면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 기관 고유의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마. 남원시

남원시 교육문화회관의 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과 여성문화센터의 문화프로그램을 종합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남원시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종합분석

구분	자료중심 (%)	어학 (%)	정보화 (%)	가족생활 (%)	예술 (%)	전통문화 (%)	기타 (%)	합계 (백분율)
공공도서관	2개 (16.7)	1 (8.3)	1 (8.3)	·	8 (66.7)	·	·	12 (100)
여성문화센터	·	3 (16.7)	·	·	15 (83.3)	·	·	18 (100)
소계	2	4	1	0	23	0	0	30

남원시 교육문화회관의 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은 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자료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보다 많이 운영하고 있어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단순하고 양적으로 매우 적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전면적인 정책수립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 남원 여성문화회관도 프로그램 운영이 단조롭고 적은 수의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만 기관의 정체성을 잘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바. 김제시

김제시립도서관의 교육문화프로그램과 지자체 직영의 여성회관과 노인복지센터의 문화프로그램을 종합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김제시 교육문화프로그램 종합분석

구분	자료중심 (%)	어학 (%)	정보화 (%)	가족생활 (%)	예술 (%)	전통문화 (%)	기타 (%)	합계 (백분율)
공공도서관	1개 (33.33)	·	·	·	1개 (33.33)	·	1개 (33.33)	3개 (100)
여성복지관	·	3개 (5.5)	·	·	50개 (90.9)	·	2개 (3.6)	55개 (100)
노인복지타운	·	·	·	·	11개 (100)	·	·	11개 (100)
소계	1개	3개	0개	0개	62개	0개	3개	69개

김제시립도서관은 일반적인 도서관 업무 이외의 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따라서 도서관 역할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과 교육문화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개편작업과 함께, 전면적인 정책수립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IV. 분석결과

1. 외형적 분석결과

전북지역의 시별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과 지자체 운영 평생학습기관들의 문화프로그램 개설현황을 종합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전체 프로그램 개설현황

(단위 : 개)

지자체	공공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문화의집	주민자치센터	여성 복지관 여성 회 관 여성 문화관	합 계
전주시	31	91	190	217	·	529
군산시	131	·	·	·	54	185
익산시	21	·	17	·	70	108
정읍시	5	·	·	·	50	55
남원시	12	·	·	·	18	30
김제시	3	11 (노인복지타운)	·	·	55	69

전주시가 총 529개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군산시(185개), 익산시(108개), 김제시(69개), 정읍시(55개), 남원시(30개)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측면에서 보면, 전주시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가장 적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새로운 교육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간정도로 개설하고 있는 군산시와 익산시는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 방안이 요청되며, 가장 적게 개설하고 있는 김제시와 정읍시, 남원시는 도서관 전반에 총체적인 정책수립과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내용적 분석결과

전북지역의 각 기관별 교육문화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의 자료관련프로그램인 자료중심, 어학, 정보화영역이 예술과 가족, 전통문화, 기타 영역보다 많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술과 자료관련프로그램의 비율이 군산시는 71% : 29%, 남원시는 66.7% : 33.3%, 김제시 66.7% : 33.3%, 전주시 42% : 58%로 나타나 도서관의 강점과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익산시는 19% : 81%의 비율로 도서관 특성을 살린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정읍시는 자료관련프로그

램이 100%로 나타나 방향성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프로그램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큰 의미는 부여할 수는 없었다.

둘째,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자료관련영역인 자료중심, 어학, 정보화영역을 고른 비율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와 김제시는 어학과 정보화영역을, 군산시는 정보화영역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 가운데 대부분 예술관련프로그램이 가장 많아 프로그램의 편중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예술관련프로그램에 있어서 남원시(8개, 66.7%)와 군산시(86개, 65.7%)는 6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편중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전주시(9개, 29%)와 익산시(5개, 23.9%)는 비교적 양호하게 운영하고 있었지만, 1개를 운영하는 김제시와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정읍시는 자료관련프로그램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도서관 자체의 대대적인 개편과 근본적인 정책수립, 교육문화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공도서관의 교육문화프로그램과 지자체 직영의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중복이 상당부분 나타났다. 전주 평생학습센터는 자체 프로그램 가운데 자료관련프로그램을 35.2%, 문화의집 26.4%, 주민자치센터 13.4%를 운영하고 있었고, 군산 여성복지관은 22.2%, 익산 문화의 집 59%, 익산 여성회관 15.7%, 정읍 여성문화회관 24%, 남원 여성문화센터 16.7%, 김제 여성회관 5.5%를 운영하고 있어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과 중복된 투자로 예산의 낭비는 물론, 선택과 집중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볼 수 없었다.

다섯째,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의 내용이 단순하게 나타났다. 특히, 예술분야와는 달리 자료관련프로그램인 자료중심영역은 독서와 논술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어학영역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자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정보화영역도 컴퓨터와 인터넷, 디카에 한정되어 비슷한 유형에 다양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도서관의 본질적 요소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모색하여, 도서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료이용을 활성화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전북지역의 시를 단위로 한 6개 지자체 산하의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기관들의 현황과 교육문화프로그램의 내용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전북지역의 시별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나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자료관련프로그램인 자료중심, 어학, 정보화프로그램 영역이 예술과 가족, 전통문화, 기타 프로그램 영역보다 적게 운영되고 있었다. 자료관련 영역에 포함된

프로그램도 일정한 비율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설조차 하지 않은 도서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관련프로그램으로 편중현상이 심하게 나타났고 지자체 직영의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상당부분 중복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 기관의 정체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기관의 성격과 관계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도서관은 기관의 특성과 성격을 반영한 도서관 고유의 정체성을 살려 자료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지자체 운영의 평생학습기관들은 지식정보자료의 불충분을 고려하면, 예술과 음식, 레포츠와 건강관련 문화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각 기관의 정체성을 반영한 문화프로그램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 각 분야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개념과 부합하고 동일 지자체하에서 운영되는 예산과 인력, 시간, 자원의 활용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적극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이 전무하였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향토 교육문화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본인과 가족 및 2세를 위한 프로그램과 그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향토관련 교육문화프로그램이 기획, 개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 가족 구성원들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향유하고 동시에 귀가가 가능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상위기관의 부서설치와 함께 전문 담당자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예산과 인력의 중복사용을 제거하고 시간, 노력 등의 낭비요소를 최소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